

## Christian Education for Sustainability

###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독교교육

유은주(Yoo, Eunju)

#### Abstract

This paper argues that Christian education for sustainability should be a spiritual education that fosters the spirituality of contentment, poverty, sharing, and justice through a critical review of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SD), which emerged to overcome today’s climate and ecological crisis. To this end, first of all, the efforts and limitation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overcome the deepening environmental problems will be considered. That is, economic interests have been prior to the environmental issues. When it comes to the ‘Green Revolution,’ there has been a huge gap between the ideal and the reality, so a sustainable society has become distant. Faced with this situation, Christian theology has been trying to build a new theological paradigm, breaking away from the limits of anthropocentric and afterlife-centered theology based on the dichotomy between the physical and the spiritual. Through such theological reflections, Christian education needs to carry out spiritual education focusing on how to deal with the problem of human greed for the restoration of the created world. In this regard, this paper presents the spirituality of contentment, poverty, sharing, and justice. For developing it, this article suggests deep theological reflection and repentance on human greed, listening to the victim’s voice, moderation in consumption, investigation of alternative cases, and decisive action to reveal the truth from the victim’s point of view.

#### Key Words

**Sustainable development (SD), Sustainability, Christian education, Spirituality, Ecological crisis**

##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독교교육\*

### Christian Education for Sustainability

유은주(Yoo, Eunju)\*\*

#### 논문 요약

**연구 목적** : 본고는 오늘날의 기후환경 및 생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지속가능발전’(SD)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해 그것이 가진 모순을 드러내고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독교교육이 자족과 청빈, 나눔과 정의의 영성을 함양하는 영성교육이 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연구 내용 및 방법** : 이를 위해 먼저 심화되는 환경문제와 이를 타개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의 노력과 한계를 고찰한다. 실제로 기후환경과 관련된 국제협약들은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지 못하는 강대국들의 탐욕으로 인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녹색혁명’의 이상과 현실 간의 차이로 인해 지속가능한 사회는 요원해졌다. 이런 상황에 직면해 기독교 신학은 그동안 인간 중심적이고 영과 육의 이원론에 근거한 내세 중심적인 고전 신학의 한계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신학적 패러다임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신학적 성찰들을 통해 기독교교육은 창조 세계의 회복을 위해 본질적으로 인간의 탐욕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 영성교육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결론 및 제언** : 이에 본고는 자족과 청빈, 나눔과 정의의 영성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를 훈련하기 위해 인간의 탐욕에 대한 깊은 신학적 성찰과 회개, 피해자 목소리의 경청, 소비의 절제, 대안적 사례 연구, 피해자 입장에서 진실을 밝히는 결단력 있는 행동을 제안한다.

#### 〈 주제어 〉

지속가능한 발전(SD), 지속가능성, 기독교교육, 영성, 생태위기

□ 2022년 11월 26일 접수, 2022년 12월 28일 심사완료, 2022년 12월 29일 게재확정

\* 이 논문은 2022년 한국기독교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2022년 11월 12일)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임.

\*\*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강사, 777integrity@naver.com

## I. 들어가는 말

오늘날 지구가 생태적 한계치에 직면하면서 그동안 득세했던 신자유주의의 신화에도 제동이 걸렸다. 유엔 해비타트(HABITAT, 2003)는 현재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2030년경에는 전 세계 인구 중 20억 명이 슬럼가에 거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McMichael, 2013, 445). 불평등의 심화와 환경오염, 산업 자원의 감소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해 전 세계의 생존은 제한된 자원을 끊임없이 소비함으로써 발전을 가속화한다는 종전의 시나리오로부터 전혀 다른 국제적 협약을 도출해내고 그것을 이행하는지에 달려있다. 더 나아가 불평등이나 환경문제는 고사하고 과연 개발 패러다임이 최소한 개발된 지역의 사람들에게라도 행복을 가져다주었는가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Mies and Shiva, 2020, 135-136). 런던 메트로폴리탄 대학교의 철학과 명예교수인 소퍼(Kate Soper)는 서구식 생활방식에 따르는 불안과 건강 악화, 우울, 기타 질병과 영적 즐거움의 상실로 인해 우리 시대의 풍요가 모든 사람에게 확대되고 무한정 지속 가능하다고 해도 ‘좋은 삶’의 모델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2021, 143). 지금까지 으레 GDP 증가를 사회발전의 지표로 삼았지만 우리는 매일같이 발생하는 폭력과 범죄, 마약의 증가와 더불어 병적 중독증세와 우울증, 자살 증가의 소식을 접하고 있다. 결국 모두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사할 줄로 기대했던 ‘발전’은 사실상 이전에는 누구에게든지 허락되었던 필수 자원인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 건강에 좋은 다양한 먹거리 등이 파괴, 독점됨으로써 서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비극을 초래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추구해왔던 것들이 무엇이었는지를 겸손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 베리(Thomas Berry), 맥페이그(Sallie McFague), 보프(Leonardo Boff) 등을 비롯한 다수의 신학자들은 창세기에서 부여된 청지기 직분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비롯해 영과 육을 분리하는 이원론적 세계관, 인간중심적 사고방식 등이 오늘날의 생태 위기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조은하, 2007, 174-180). 특히 계몽주의 이래로 인간의 합리성에 대한 절대적 신뢰는 인식의 주체와 대상을 분리함으로써 관계의 통전성과 균형을 깨뜨려버렸고 특정한 소수 중심의 진보의 신화로 인해 오늘날 전 지구가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한계를 재인식하고 이성을 통한 인식 중심적 접근 방식으로부터 영성과 감성, 이성이 인간의 인식과 실천을 아우르는 통전적 접근 방식으로의 전환이 우리에게 요청된다. 조직신학자 그루디(Daniel G. Groody)는 『세계화, 영성, 정의』(Globalization, Spirituality, and Justice)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환경과 세계에 대한 전체적 고찰 및 빈곤문제와 관련해 면밀한 고찰, 인간의 마음 중심에 대한 내면적 고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2009, 1-12).

따라서 오늘날 전 지구적으로 벌어지는 기후·환경문제에 대한 기독교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먼저 심화되는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조 노력을 간략히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한계를 고찰한 후에 궁극적으로 ‘발전’이라는 명분하에 자연만물과 동료 인간에 대한 착취를 포기하지 못하게 하는 인간의 탐욕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본고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기독교가 자족과 청빈, 나눔과 정의의 영성을 함양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며 이런 영성들을 훈련하기 위해 현실 사회와의 관계성 속에서 깊은 신학적 성찰과 회개, 피해자들의 목소리 경청과 사실 조사, 올바른 선택과 소비, 근검절약과 나눔, 피해자 입장에서 진실을 밝히고 알리는 결단력 있는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할 것이다.

## II. 심화되는 환경문제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전 세계는 현재 지구의 온난화(warming)를 넘어 가열화(heating)를 우려하고 있다. 세계 ‘환경위기시계’를 비롯해 IPCC(2019)의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 또는 다큐멘터리 영화 “불편한 진실”(An Inconvenient Truth), “지구온난화: 6도의 악몽”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는 위기의식이 전문가들 사이에 팽배해있다. 미래세대를 대표해 툰베리(Greta Thunberg)는 UN 단상에 올라 기후변화에 대한 기성세대의 미온적 태도를 질책했다. 한편, 기후변화 때문에 산업을 중단할 필요가 없으며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낙관적 전망(Lomborg, 2003; Shellenberger, 2021)이 혼재되어 위기감이 반감되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이인미, 2022, 164). 한편에서는 불안을 호소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불안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와 같은 관점의 차이는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SD) 담론에서도 드러난다.

세계 정상급 지도자들은 국제회의들을 통해 여러 차례 환경문제 및 불평등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SD를 제시했으며 이로써 환경문제와 경제개발 간의 갈등이 중재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SD의 개념은 1983년에 설립된 UN 세계환경개발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 즉 브룬트란트 위원회(Brundtland Commission)가 발간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 1987)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초로 도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정의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건으로 빈곤퇴치를 제시했다(WCED, 1987, 8; 43-46). 이로써 경제발전과 환경문제 간의 연관성이 강조되면서 SD가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이후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또는 지구정상회의(Earth Summit)는 SD 개념을 진전시키는 분수령이 되었다. 여기서 국제사회는 ‘사전예방 원칙’과 ‘오염자 부담 원칙’이라는 중요한 두 가지 생태 원칙을 채택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두 가지 협약, 즉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에 서명했다. 여기서 환경과 개발에 대한 리우선언 및 아젠다 21, 산림원칙 성명 등 비강제적 협약을 도출했으며 아젠다 21는 훗날 새천년발전목표들(MDG)과 지속가능발전목표들(SDG)의 토대가 되었다. 1997년 교토에서 열린 UNFCCC 당사국 회의에서는 55개국이 각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 이하로 유지한다는 각오 하에 ‘교토의 정서’(Kyoto Protocol)를 채택해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주요 온실가스의 배출량 감축에 법적 구속력을 부과하기로 하고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창안했다(Shiva and Shiva, 2022, 187; Snarr and Snarr, 2018, 396-399).

뉴 밀레니엄에 접어들면서는 세계의 인구증가와 빈곤, HIV/AIDS 문제에 대해 글로벌 개발목표들을 지원하는 장기 계획에 합의하는 ‘새천년선언’을 통해 ‘새천년개발목표’(MDGs)가 도출되었고 이를 통해 2015년 MDG 보고서는 극심한 빈곤의 감소를 비롯해 극심한 기아의 감소, 초등학교 등록률 상승, 비농업분야 여성 노동자 수 증가, 영유아 사망률 감소 등의 성과를 보고했다. 그 결과, 하루 1.25 달러 이하의 절대빈곤으로 살아가는 인구수가 1990년 19억 명에서 2015년 8억 명으로 감소했다. 2002년 요하네스버그에서는 리우 10주년을 기념해 요하네스버그 선언(MDG 이행 선언), 2012년 리우+20에서 ‘녹색경제’(Green Economy) 등을 도출시켰다. 그밖에도 2014년 리마 회의를 통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가 화석연료의 연소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동의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모든 국가들은 2020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게 되었다. 중국과 인도가 국제적인 배출 인증 시스템에 보고하는 데 합의하게 되고 개발도상국을 위한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for Developing Nations)이 창설되어 2020년부터 매년 1,000억 달러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으며 유럽을 중심으로 화석연료 대신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는 데 주력하게 된 것은 세계적인 기후회의를 통해 얻게 된 긍정적 성과다(Snarr and Snarr, 2018, 437-443).

이후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는 MDG의 성과와 한계, 예를 들면 지역별, 국가별 불균형 문제와 미해결된 절대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빈곤퇴치와 위생개선 등 MDG의 기초에 더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기후문제, 불평등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에 대해 비판가들은 이들 항목들이 서로 겹치기도 하고 상충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통합성의 결여를 지적했다. 근원적으로 SDG는 GDP의 증가를 기본 전제로 삼고 있으며 전 세계 1퍼센트의 부의 집중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Ford, 2015; Hickel, 2016;

Snarr and Snarr, 2018, 405-416). 이는 SD 개념이 도출될 당시부터 지속되어 온 것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논쟁(Pezzy, 1992)을 비롯해 ‘무엇의 지속가능성인가, 환경인가, 경제개발인가’에 대한 논쟁(Ekins, 1994; Van der Bergh and Van der Straaten, 1994), ‘그것이 현실적으로 실친 가능한 개념인가’에 대한 논쟁(Beckerman, 1994; 1995; Daly, 1995; Jacobs, 1995)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이처럼 환경문제와 개발 간의 내재적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박명희 외, 2006).

결국 다양한 국제적 공조에도 불구하고 환경문제는 난항을 겪고 있다. 외교안보연구원 경제통상연구부 최원기 교수는 기후변화협상에 있어 다뤄지는 의제가 너무 다양하다는 점과 194개국의 합의제 결정방식으로 인한 난점, 주요 협상그룹 간의 정치적 동학에 의한 영향 등을 그 한계로 지적했다(2012, 117). 월밍턴 대학의 스나와 스나(Snarr and Snarr) 교수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국제회의들은 첫째, 협약을 어길 시 책임을 지울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점, 둘째, 탄소 배출 절감과 관련된 구체적 지침과 방안이 미비하다는 점, 셋째, 누가 기후변화 문제에 더 책임이 있느냐는 책임 소재의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 즉, 환경문제와 관련해 가장 주된 관심사는 온실가스 배출을 과연 어떻게 줄일 것인가, 배출량 감축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며 국가별로 이런 비용들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 등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실제로 대체 에너지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 반면,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한 실질적 방안보다는 탄소 배출권의 거래 등의 우회적인 방식을 선호하면서 이런 협약들에 법적 구속력이 부여되는 것을 회피했다(2018, 430-4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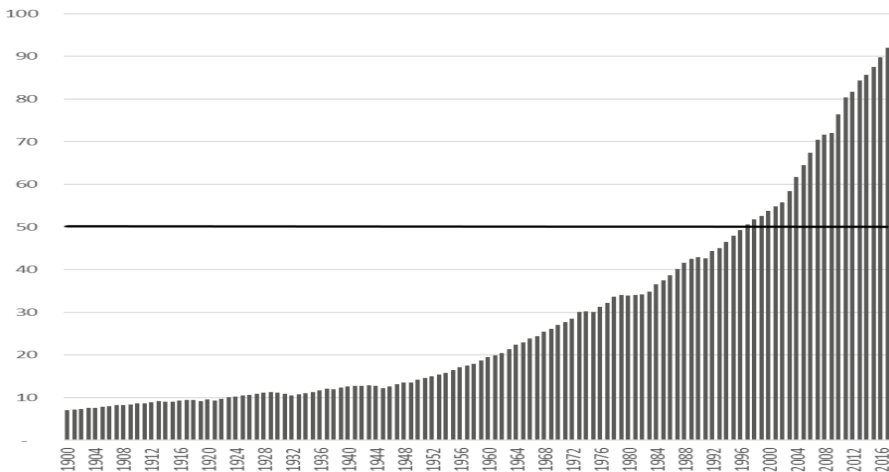
성공회대 신익상 교수에 따르면, SD 담론은 사실상 시장 자본주의가 추동하는 경제발전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데 한계가 있다(Shin, 2019, 125-127). 그것은 자율적 시행에 기초를 둔 기후변화 협약에 비해 무역 협정은 법적 구속력을 갖기 때문이다. 일례로, 1992년 기후변화협약과 1997년 교토의정서에는 “기후변화를 저지하는 방안으로 채택된 모든 수단은 국제 무역에 대한 제약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신익상, 2021, 128). 항공 수송을 비롯해 원거리 무역은 불가피하게 탄소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항이 존재한다는 점은 그들에게 있어 환경위기는 다만 레토릭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실제로 1995년 베를린 회의에서 주요 산유국들을 비롯해 미국, 호주 등 탄소 다량 배출국들의 반대로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20퍼센트 절감 계획은 실패했고(Brown, 1996; Flavin, 1996; Gupta, 2010) 2대에 걸친 부시 정부와 트럼프 정부의 집권기간 동안 미국의 협상 철수로 인해 곤란을 겪다가 2021년에 미국의 파리기후협약 재가입을 통해 비로소 신기후체제가 도입될 수 있었다(신익상, 2021, 128).

기후변화협약 이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체결과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설립, 1997년 교토의정서의 채택 등이 일련의 이벤트들은 협상의 테이블에 앉게 되는 결정 주체들이 실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이런 모순이 노출된다. 또한 클린턴의 미국 대선 당시 NAFTA 조인 시기가 겹치면서 클린턴과 고어를 지지했던 진보적 성향의 환경운동 단체들이 그만 그들을 따라 NAFTA를 지지하는 데 동참함으로써 미국 내에서 기후변화 문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Dowie, 1996, 185-187). 결과적으로 무역협정에서 기후에 대한 논의의 의도적으로 배제시키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고 일례로 2014년에 체결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의 경우, 유엔 기후변화협약 이행에 대한 초안이 변경되어 결국 최종안에서는 삭제되는 일이 발생했다(신익상, 2021, 127-132). 또한 탄소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아직 미비한 상태다. 한 조사에 따르면, 단지 영국과 독일만이 교토의정서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정도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치에 따라 석탄, 석유 가격이 상승되면 국민 경제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배출량을 30퍼센트까지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며 목표 도달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Kerr, 2000). 배출량 감소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부터 녹색기후기금에 대해서도 기금 마련과 관련된 세부 사항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협약의 이행 수단 강화 및 구체화가 요구된다(Broder, 2012). 또한 궁극적으로 이 문제에 있어 누구의 책임이 더 크냐는 질문이 제기된다. 북반구의 관점에서는 남반구에서의 개발이 환경적으로 건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지만 남반구는 환경파괴를 통해 부자가 된 북반구가 환경기술에 대한 접근을 비롯해 재정적인 부담을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Snarr and Snarr, 2018, 401).

결국 1900-2017년에 이르는 광범위한 시기 동안 전 세계의 물질 사용량은 다음과 같이 보고되고 있다.

〈표 1〉 세계 물질 발자국 (1900-2017년), 단위 10억 톤



출처: Jason Hickel, 『적을수록 풍요롭다』 김현우·민정희 공역 (파주: 창비, 2021), 147.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1900년대 첫 번째 반세기동안 물질 사용이 꾸준히 증가하는데 특히 1944년 브레턴우즈(Bretton Woods) 협정 이후 경제 발전 지표로서 GDP가 도입된 이래 각국의 경제활동이 GDP를 통해 수치화, 비교가 이루어지면서 무분별한 성장주의가 전 세계를 장악하게 되었다. 그 결과, 물질 사용량은 점점 더 폭발적으로 증가해 2000년까지 500억 톤(지구의 처리 한계치)을 기록한 후 최근 20년 간 과거 백 년 동안의 사용량의 거의 두 배에 달하게 되었다. 런던 정경대의 히켈(Jason Hickel)에 따르면, 이는 “고소득 국가에서 사용가치가 아닌 교환가치를 중심으로 형성된 과잉소비의 결과”다(Bringezu, 2015: Hickel, 2021, 147-148에서 재인용). 경제학자 쿠즈네츠(Simon S. Kuznets)가 경고했듯이, GNP나 GDP는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경제활동을 포함시키지 않으며 어떤 경제활동이 인간의 복지에 유용한지 파괴적인지에 대해 가치중립적이므로 진보의 표준 측정치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GDP 증가를 목표로 각국 정부로 하여금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에 최우선적 가치를 두고 경제를 관리하게 한 결과, 생산성의 제고가 결국 노동에 대한 수요 감소, 실업률 증가, 빈곤의 심화로 이어지는 “생산성의 덩”(productivity trap)에 빠지게 되었다(Jackson and Victor, 2011, 101-108). 결국 서구 경제는 1970년대 말부터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했고 이를 타개하고자 도입된 신자유주의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즉, GDP에 기초한 ‘발전’은 진보의 개념을 왜곡시켰다(Hickel, 2021, 135-145).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세계은행 등의 초국적 기구들은 SD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녹색 혁명’(Green Revolution)을 추진했다. 그들은 수출용 단일 작물의 기업적 영농이 식량 자원을 증대시켜 전 세계의 기아 문제를 해결하고 가난한 농가의 소득을 보장해 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인도의 생태운동가이자 과학자인 시바(Vandana Shiva)에 따르면, 녹색혁명 도입(1965년) 이전에는 기아로 사망하는 사례가 드물었지만 녹색혁명 이후 오히려 기아가 증가했다. 대표적으로 다국적 생화학 회사인 몬산토(Monsanto)는 화학비료를 비롯해 유전자 변형 종자(GMO) 등의 판매로 인도 경제를 잠식했고 GMO에 맞먹는 슈퍼 병충해의 출현으로 더 센 살충제를 투입하게 됨으로써 지역민들의 건강 악화, 부채 부담 증가, 토지 차압, 결국 자살로 이어지는 비극을 초래했다. 빠른 성장의 대가로 토양을 황폐화시키는 몬산토의 Bt 목화과 터미네이터 유전자 등의 사례들은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가려진 “새로운 식민주의”의 실상을 나타냈다(Mies and Shiva, 2020, 147-175). 더 나아가 사회학자 미스(Maria Mies)는 개발론에 내재된 문화적 편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즉, 서로 다른 사회적 맥락에도 불구하고 서구의 산업경제로부터 도출된 진보 모델과 서구식 진보가 모두에게 가능하다는 잘못된 가정에서 출발한 발전 개념은 GNP/GDP와 같은 재정지표에 근거해 인도의 전통적인 자급자족 경제를 빈곤으로 잘못 이해했고 개발 과정에 따르는 환경 파괴 등



의 문제들을 간과해버렸다는 것이다. 그녀에 따르면, 모든 개발 전략은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을 ‘좋은 삶’의 모델로 삼고 있으며 그들이 취했던 동일한 과정, 즉 산업화와 기술 진보, 자본 축적의 길을 뒤따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가치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이런 역사관에 따르면 진보의 정점에는 산업국의 도시에 거주하는 백인남성들이 있고 여성과 유색인, 저개발국, 농민들은 주변인으로 전락한다. 그녀는 이런 “따라잡기식 개발의 길이 신화에 불과”하며 늘 지는 게임이 되고 말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 역시 미사여구에 불과함을 지적했다. 그러나 저개발국의 빈곤은 자연적인 뒤처짐의 결과가 아니라 식민 지배의 결과다. 더욱이 전 세계 인구의 6퍼센트를 차지하는 미국인들이 화석연료 총 생산량의 30퍼센트를 소비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나머지 인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부족 문제와 그로 인해 초래될 환경적 문제는 자명해진다(Mies and Shiva, 2020, 126-140).

요약하면, 문화적 편파성에 기초한 발전 패러다임은 오히려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활양식을 파괴했으며 생물 다양성을 부정하고 자원 집약적 상품 생산으로 대체함으로써 물질적 빈곤과 환경의 파괴를 초래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공동체를 위한 돌봄과 생산 활동에 참여해온 여성들을 간과, 배제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Mies and Shiva, 2020, 12-19). 이런 한계들로 인해 ‘지속가능한 발전’보다는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III. 지속가능성을 위한 간학문적 대안의 모색

지금까지 SD가 표방하는 이상과 현실을 비교 고찰함으로써 SD 담론에 숨겨진 이면을 살펴해보았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가. 기독교윤리학자 피터스(Rebecca T. Peters, 2004)가 제시한 대로 ‘좋은 삶’에 대한 이상과 그것을 추구하기 위한 방법은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떤 가치를 더 중시하는가와 관련된다.

〈표 2〉 ‘좋은 삶’에 대한 네 가지 관점

	신자유주의	개발론	환경주의	탈식민주의
세계화에 대한 이해	새로운 세계질서	사회 개발	지역화	신식민주의
상화적 맥락	개인주의	불평등한 사회에 대한 책임	상호의존성	공동체
인간 삶의 목적	번영	진보	정의	문화 창출
좋은 삶의 조건	자유	형평성, 재분배	지속 가능성	자치권

출처: Rebecca T. Peters, In Search of the Good Life (New York: Continuum, 2004),21-31.

각각의 관점들은 번영, 진보, 정의, 공동체 문화 창출 등 서로 다른 이상을 지향하는데 비록 지금까지는 지배계층의 주류 담론으로서 신자유주의가 패권을 장악해 왔지만 그것이 표방하는 경제적 번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선택의 자유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옵션이 아니다. 또한 앞서 고찰한 대로 형평성 있는 분배를 통해 진보를 지향하는 개발론도 신자유주의에 의해 왜곡되고 마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인간 공동체 및 지구환경과의 관계성 속에서 무엇이 진보이며 정의인지에 대한 재구명이 필요하며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역 공동체의 자치권을 요구하는 대안적 관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세계화의 담론은 이제 신자유주의가 추동하는 개발 담론이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후환경 문제와 불평등 문제 해결에 관심의 초점이 옮겨가고 있다.

사회학자 하비(David Harvey)는 기후문제가 자본주의 체제, 즉 초과이윤을 얻기 위한 자본의 속성으로부터 비롯된 과잉생산과 과소비, 그리고 생활양식의 문제로부터 발생한다고 보았다(2022, 169-177, 225-228). 그렇다면 이를 돌이킬 방법은 무엇인가. 환경운동가인 클라인(Naomi Klein)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에서부터 지속가능성을 위한 실천이 시작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들어가는 에너지, 예를 들면 수도, 전기, 가스, 휘발유 등의 절약, 자동차와 비행기 이용 자제, 수입품 소비 절제 등을 비롯해 물건을 자주 교체하는 대신 장기간 사용하며 주택의 크기를 줄이는 것 등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실천할 수 있다. 이런 개인적 실천에서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저탄소 생활양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종합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이 구축되어야 한다. 그녀에 따르면,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저렴하고 깨끗한 대중교통과 교통 조건이 좋은 고효율의 주택 공급 등을 비롯한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로써 환경문제와 불평등 문제는 연장선상에 있다(2016, 136-141). 이처럼 지속가능성을 위해 불필요한 생산의 규모 축소, 공공 서비스와 주택에 대한 접근 확대, 소득 불평등의 완화 및 노동시간의 단축, 일자리 보장제 등의 도입이 곳곳에서 제안되고 있다(Hickel, 2021, 11-16). 또한 앞서 살펴보았듯이, GDP에 기초한 발전 개념 대신 지속가능성의 척도로 탄소 배출량과 생산비용 등을 포함하는 “참진보지수”(Genuine Progress Index: GPI), “지속가능발전지표”(Sustainable Development Index)가 활용될 필요가 있다(Hickel, 2021, 238-239; 2020, 6-7).

또한 현재까지도 반복되고 있는 식민주의적 행태와 착취구조와 관련해 신학적으로는 인간 중심적이고 이원론적, 내세 중심적인 고전 신학의 한계가 지적된다. 맥페이그에 따르면, 고전 신학은 기후변화의 위기 앞에서 인간을 방관자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신고전주의 경제학과 함께 기후변화 위기를 촉진했다. 그녀는 인간을 포함한 지구 전체의 멸종 위기 앞에서 인간 사상의 가장 근원을 다루는 신학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촉구했다(McFague, 2008: 장윤재, 2020, 64-65에서 재인용). 그녀는 기존의 가부장적-군주적 하나님 모델 대신 어머니, 연인, 친구로

서의 생태적-여성신학적 모델이 생태환경을 지속적으로 돌보시는 어머니로서, 죄로 인해 타락해버린 세상을 내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연인으로서, 소외되고 배제된 자들과도 교제하시는 친구로서의 하나님을 통해 창조 세계를 회복하게 하는 동력을 제공한다고 주장했다(McFague, 2006). 여성신학자인 파스(Matthew Fox)도 어거스틴 이후의 타락/구속 중심 신학이 창조 세계의 신비나 인간 사회 속에서의 정의구현, 사회개혁, 에로스의 기쁨 등을 저해하는 데 영향을 끼쳤으며 제국주의와 가부장주의 등의 하수인 역할을 했다고 비판하면서(1983, 9-11, 59-61)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창조 영성의 회복을 제시했다. 그가 주장하는 '창조 영성'이란 창조 세계의 관계성과 상호의존성 가운데 불의와 억압에 대해 관심과 연민을 갖고 치유와 정의의 구현을 위해 연대하는 것이다(Fox, 1991: 조은하, 2007, 183-184에서 재인용). 조직신학자 김균진(2021) 역시 지금까지 기독교 신학은 하나님의 창조를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고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는 오만과 자의적 해석에 빠져있었지만 이는 지배권이 아닌 섬김과 자기제한, 자기희생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389-392). 또한 현재의 생태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독교적 영성은 개인의 영혼 구원을 위한 '구원론적 영성'을 초월해 사회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메시아적 영성'과 자연 생태계 전부를 돌봄의 영역으로 포괄하는 '생태학적 영성'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그에 따르면, 코로나19도 결국 인간의 무한한 소유욕으로 인해 발생되었다. 그는 만물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재인식하고 그분을 경외함으로써 물질에 대한 염려와 번민을 내려놓고 자기 비움과 나눔, 공생의 삶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367-389).

생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독교교육학적으로도 많은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다. 김은주(2020)는 심층 생태주의와 사회 생태주의, 생태 여성주의 등의 생태 담론들을 정리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재성과 상호관련성, 공동체성에 기초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인간관을 회복하게 하는 '생태학적 기독교 영성'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그녀는 생태학적 기독교교육을 위해 성만찬을 통한 몸의 영성의 회복과 케노시스의 실천을 제안했다. 류삼준(2021)은 생태위기의 개념을 생명위기로 확대해 자살, 산재 사망사고, 취약 계층의 죽음, 생태계 파괴 등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 즉 안식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생명위기에 저항하며 생명의 안녕과 평화를 도모하는 기독교교육을 제안했다. 조미영(2021) 역시 성서 내의 창조, 안식, 성육신 등의 개념을 기초로 인간과 자연 간의 배려와 존중, 창조 영성의 회복과 청지기로서의 책임 및 연대를 위한 기독교적 생태교육을 제시했다. 특히 2022년 한국기독교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는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개념의 신학적 접목을 모색했다. 경제학자 이호영(2022)에 따르면, ESG 경영의 원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연관되며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폐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혁신적인 개념으로 이를 기독교교육 현장에 도입해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회복과 대형교회와 중소교회의 협력을 통한 양극화 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박상진(2022)은 그동안 성장주의적 교회교육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ESG의 개념에 기초한 창조교육, 환경교육, 생태교육, 정의교육, 평화교육, 섬김의 리더십 교육 등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런 다양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본고는 이제 지속가능성을 위해 기독교교육은 인간의 탐욕과 관련하여 영성교육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살펴본 대로, 수많은 회의를 비롯한 이성적 접근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이미 자리 잡은 현대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글로벌 협력 시스템 속에서 상품의 지속적인 생산 및 그것의 소비, 이런 모든 과정을 부추기는 선전광고들로 현대인들을 현혹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교육의 핵심과제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인간의 탐욕을 극복하게 하며 생태 환경을 돌보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거듭날 수 있게 하는가이다. 이를 위해 본고는 자족과 청빈, 나눔과 정의의 영성을 제고하는 기독교교육을 제안한다.

#### IV.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독교적 영성과 영성교육

이를 위해 먼저 기독교 영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의들이 있지만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기독교 영성은 첫째, ‘자족의 영성’을 의미한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오늘날의 생태환경 문제는 본질적인 측면에서의 전환이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성서에서 정확하게 지적했듯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며 오늘날의 생태환경 위기 역시 이윤 추구의 지나친 탐욕으로부터 비롯되었다. 특히 사회주의 진영의 쇠락 이후 사회민주주의의 쇠퇴, 신자유주의의 득세로 사적 이익의 추구와 더 많은 이윤을 위한 경쟁이 극단적으로 심화되었고 이윤 획득에 반하는 규제들을 탈규제화함으로써 노동권과 환경권이 약화되었음을 고찰할 때 이 모든 역학의 중심에는 희소한 자원을 서로 쟁취하려는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장윤재, 2016). 그러나 기독교교육은 자원의 희소성이 아니라 모든 것을 풍성하게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대한 믿음에 근거해 이런 논리로부터 학습자들을 자유롭게 해야 할 것이다. 스리랑카의 신학자 피에리스(Aloysius Pieris)는 ‘가난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poverty)가 ‘가난으로부터 오는 자유’(freedom that comes from poverty)와 결합하지 않으면 맘몬과의 싸움에서 결코 이길 수 없다고 했다(장윤재, 2020, 54).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3-24절과 빌립보서 4장 11-12절에서 말했듯이 자신보다 타인을 위해 스스로 한계를 설정하고 그 안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가르쳤다. 이로써 그는 어떤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 자족의 영성은 자원의 희소성에 근거한 치열한 경쟁과 적자생존이라는 사회진화론을 침식시키는 영적 토대가 될 수 있다. 자족

의 영성에 바탕을 둔 기독교적 대안 패러다임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양극의 체제를 초월해 예수의 하나님 나라 비전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다(유은주, 2022b, 286-293; Blomberg, 2013, 211). 이를 바탕으로 둘째, ‘청빈의 영성’이 형성될 수 있다. 청빈의 영성과 관련해 자신의 모든 소유를 영적 교제의 방해물로 여긴 사막교부들의 삶과 실천이 귀감이 된다. 그들 가운데 한 가지 사례로 압바 마카리오스는 자신의 수실에서 물건을 훔치던 사람을 발견했지만 그는 도둑을 잡기는커녕 오히려 도둑이 노새에 짐을 싣는 것을 도와주고 그를 보내면서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은 아무 것도 없다”라고 고백했다는 일화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한국교회사학회 편, 2011, 332). 앞서 살펴보았듯이, 인간의 무한한 욕망, 즉 소유와 인정에 대한 욕구는 끊임없는 생산과 소비를 유발시킨다. 그러나 자족의 영성과 청빈의 영성은 그런 욕망들이 헛된 것임을 깨닫게 하며 결국 이것이 생태적 영성과 결합되어야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이 가능해질 것이다(장운재, 2020, 54-55).

그러나 여기에 그치면 안 되고 셋째, ‘나눔의 영성’ 또는 ‘공조(共助)의 영성’이 필요하다. 다시 바울의 경우를 살펴보면 그는 토라의 가르침을 실천할 사회정치적 맥락이 사라진 상황 속에서도 이방 교회로부터 헌금을 모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함으로써 모세오경과 이웃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려고 노력했다(김희권, 2019, 63-64). 바울은 이 헌금을 구호금, 또는 디아코니아(봉사), 코이노니아(일치/친교), 레이투르기아(봉사, 사제적 직무), 찬양, 축복, 선물, 은총 등으로 다양하게 칭하고 있는데 그것은 구제가 경제적인 도움이라는 의미를 넘어 초대교회 내의 식량 관리 봉사의 의미로서 디아코니아와, 유대 공동체와 이방 선교 공동체 간의 친교를 의미하는 코이노니아,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이 자신의 사제적 임무 안에서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대신해 바치는 봉헌 제물로서 레이투르기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인간의 당연한 임무로서 찬양과 기쁨의 표현으로서 자발적 선물 등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이때 나눔은 고린도후서 8장 13-14절의 형평성의 원리에 기초한다. 당시 헬라 세계에서 형평성은 도움을 주고받는 편 사이에 동등하고 균형 잡힌 상호관계를 전제로 했다. 바울은 물질적 차원과 영적 차원 간의 교류를 통해 부유한 이방 교회와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가 형평성을 이루게 된다고 보았다(유진영, 2004, 9-13).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타인에게 음식을 접대하고 환대하는 것,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방이 여러 개인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손님들을 위한 게스트룸을 마련한다든지, 차가 없는 이웃에게 자신의 차를 빌려준다든지 하는 방법 등을 통해(Blomberg, 2013, 188) 지속가능성을 구체화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넷째, ‘정의의 영성’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개인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시스템 전체의 구조적인 차원에서의 변화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오늘날 기후·환경위기의 본질은 산업구조, 즉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대량 생산, 대량 소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문적인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며(장운재, 2020, 46) 이에 대해 기독교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성의 대안 파트에서 살펴보았듯이, 사회 발전에 있어서 GDP 총량의 증가보다 소득 분배가 중요하다는 점과 그 구체적 대안으로 보편적 의료보장을 포함해 사회보험 체제의 정비, 저렴한 임대주택, 보육 서비스, 최저임금, 기본소득 등 공유재의 확보 등이 논의되고 있다(Hickel, 2021, 235-250; Naomi, 2016, 138-143). 정의의 영성은 피상적이거나 철학적인 정의 담론에 그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사회적으로 실현시키느냐와 관련된다(유은주, 2020; 2021).

이처럼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독교교육은 자족과 청빈, 나눔과 정의의 영성을 육성함으로써 학습자들로 하여금 그동안 다른 사람들처럼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고 누리려 했던 탐욕으로부터 벗어나 인간의 인간됨, 즉 인간은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며 다만 그분의 은혜로 인해 받은 은혜를 나누는 청지기일 뿐이라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재인식하게 하고 동료 인간과 창조 세계의 아픔을 공감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 비전에 반하는 기존의 구조악에 저항해 그것을 변혁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도전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영성은 어떻게 훈련할 수 있는가. 첫째, 현 시대와 사회와의 관련성 속에서 깊이 있는 신학적 성찰과 회개가 요구된다. 오늘날과 같은 금융 자본주의 세계 속에서 기독교 신앙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너나 할 것 없이 “재테크”에 빠져있는 일상 속에서 기독교 신자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부동산으로 얻은 시세차익을 통해 거액의 감사헌금을 하는 신자들에게 목회자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가.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불로소득이 기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성실하게 땀 흘리지 않고 누리는 부가 결국 가난한 사람들과 자연을 약탈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가. 기독교교육학자 유은주(2020)는 구약의 희년사상에 기초해 현대적 맥락에서 주빌리 정의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논했다. 그녀는 경제학자 스티글리츠(Joseph E. Stiglitz)의 논의에 기초해 특권층이 누린 부당한 이득과 관련해 경제의 비효율화와 생산성의 저하를 초래하는 지대추구 행위,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금융권의 약탈적인 대출 및 신용카드 관행, 불투명한 파생상품의 거래 등 현대의 잘못된 관행들에 대한 신학적 고찰이 필요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누진세의 강화 등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295-304). 또한 코로나19 이후 심화되는 생활고 등 여러 문제들에 대한 대안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신학적 근거를 재고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는 무엇인지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유은주, 2021).

둘째, 지속가능성을 위해 이런 신학적 성찰과정에서 소외된 존재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례로, 다큐멘터리 영화 “더 트루 코스트”(The True Cost)에서는 패스트 패션에 가려진 착취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의 고생은 끝이 없어요. (중략) 이 옷은 우리의 피로 만드는 거나 다름없어요.

많은 봉제 공장 노동자들이 다양한 사고로 죽죠. 일 년 전에도 라나 플라자 붕괴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때 많은 노동자들이 죽었어요. 우리에게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지요. 우리 피로 만들어지는 이런 옷을 아무도 안 입었으면 좋겠어요.” (The True Cost에서 재인용)

노조가 결성되어 있지 않는 방글라데시는 패션계의 주요 착취 대상이다.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의류 생산지지만 의류공장 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으로 월급 68달러를 받으며 중국의 임금(약 280달러)과 비교하면 사분의 일 수준에 해당한다. 다국적 패션기업들의 착취로 발생한 2013년 라나 플라자 붕괴사고는 삼천 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다(박세진, 2017; 최미량, 2016). 그러나 이는 먼 나라 이야기만은 아니다. 한국도 각종 산업재해 문제로 심각한 상황인데 대표적으로 한국타이어의 경우 공식적으로는 1% 미만의 산재율을 자랑하고 있으나 노동자들의 집단 사망과 관련되어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이동훈, 2017; 이병진, 2018; 황응구 외, 2018; Lee, 2018). 우리에게 필수품이 된 자동차, 그리고 타이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고무, 유황, HV-250을 비롯한 각종 화학약품이 사용되므로 노동자들은 뜨겁고 유해한 고무흙에 노출되어 직업병에 시달리기 십상이다. 그 결과, 2018년 당시 사망자만 168명으로 집계되었고 추가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지만(Lee, 2018) 피해자 인터뷰 결과 사측에서는 이를 은폐하면서 비용 절감을 위해 대체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장치를 일부러 꺼놓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그동안 은폐되었던 문제점을 노출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무분별한 소비 대신 그것들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아픔을 간과했던 잘못에 대해 회개와 참회해야 한다. 교회 역시 그동안 부자와 강자의 편에서 복음을 왜곡한 것과 신자유주의의 포로가 된 것을 깊이 참회해야 한다(장운재, 2020, 54).

이런 참된 회개 가운데 셋째, 행동의 변화, 즉 생활 속에서의 소비 절제, 절약하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 가지 실천 사례로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은 7주간에 걸친 탄소 금식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는 각 주마다 ‘아무 것도 사지 않기’로부터 출발하여 ‘일회용(플라스틱) 금식’, ‘고기 금식’, ‘전기 사용량 줄이기’, ‘종이 금식’, ‘전등 끄고 기도의 불 켜기’, ‘지구를 살리는 거룩한 습관’으로 구성된다. 이와 관련해 특히 기업적 축산은 동물에 대한 폭력을 비롯해 가축의 분뇨로부터 배출되는 메탄가스, 사료 재배를 위한 벌목과 GMO 식품의 안정성 문제, 가축에게 투여되는 각종 호르몬과 항생제 등 여러 문제들을 노출시킨다(임희숙, 2015, 278-282). 또한 기업적 농경 역시 경종농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전체 온실가스의 20퍼센트를 차지하면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례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비료회사인 남해화학의 탄소 배출량은 삼성전자의 1.3배, 현대자동차의 4.6배로 보고되고 있다(윤지로, 2022, 161-198).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 농법과 유기농 농산물을 구입, 소비하는 데 적극

적으로 동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 농업은 노동력도,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럼 가격이 보전되어야 하는데 가락(시장)으로 가면 오히려 더 적게 받아요. 크기가 작고 때깔도 안 좋으니까. 그곳은 유기농인지 무기농인지가 아니라 겉만 보고 가격을 매기잖아요. 그래서 유기 농산물이 일반 소비시장으로 가기 어려워요. 그나마 학교에서 친환경급식으로 절반 정도를 소화해줘서 유지되는 수준이에요.” (김병혁 전국친환경 생산자협동조합 사무처장, 윤지로, 2022, 197에서 재인용)

이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임희숙(2010)은 내 고장 식품 먹기, 제철음식 먹기, 전통음식 먹기, 생활협동조합 운동의 활성화를 주장했다. 화학비료와 농약, 항생제, 성장 호르몬, 살충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 식물의 자연스러운 성장 속도에 따라 농작물을 기르는 데에는 시간과 자본이 더 많이 요구되지만 죽음의 밥상에서 비롯되는 질병과 고통, 의료비를 감안하면 슬로우 푸드가 훨씬 경제적이 될 수 있다(임희숙, 2010, 288). 이처럼 지속가능성을 위해 건강과 환경, 이웃, 미래를 고려하여 생필품에 대해서는 그에 정당한 값을 치러야 하는 동시에 꼭 필요하지 않은 재화 구입에 대해서는 소비하지 않는 현명한 소비가 필요하다. 패스트 패션 및 명품의 이용, 해외여행, 승용차 이동 등을 자제하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자전거와 철도 등을 이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Soper, 2021, 146-166).

넷째, 대안적 실천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찾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아미쉬 공동체는 현대 문명의 이기를 누리는 대신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스스로 한계를 설정하고 가장 단순한 형태의 소비에 자족하며 비폭력과 무조건적 용서의 가르침을 따라 평화롭고 자연친화적인 삶을 살고 있다. 그들은 전기 대신 등불을 켜고 자동차 대신 마차를 이용하며 농사에 비료나 농약을 쓰지 않는다. 이처럼 18세기의 삶을 고집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현대 문명의 이기가 편리함을 주는 대신 인간성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김난예, 2017, 22-24). 자족과 청빈, 나눔과 정의의 영성을 함양하기 위해 아미쉬와 같은 공동체들을 방문, 관찰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위한 교육 과정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바는 간디의 세 가지 원칙, 즉 스와데시(자립, 지역 경제), 스와라지(자치, 자조), 사티아그라하(시민불복종, 저항)에 근거해 현대적인 대안 운동을 제시했다. 첫째, ‘스와데시’(자립)를 통해 지역 공동체는 지역에 필요한 것을 생산하고 소비자는 외제품 대신 지역 상품을 구매하여 생태 발자국을 줄이고 소규모 농장의 파괴와 생물 다양성의 소멸, 동물 학대, 기후 불안정, 전염병 확산, 토양의 사막화 등을 막을 수 있다. 둘째, ‘스와라지’(자치)를 통해 세계은행이나 WTO 등의 획일적 통제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천할 권리를 요구함으로써 생물 다양성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실행한다. 셋째, ‘사티아그라하’



(시민불복종)를 통해 지구를 파괴하고 인간성과 자유를 강탈하는 체계, 구조, 법률, 패러다임, 정책 등에 대해 협조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 권리를 회복한다. 그 성과로서 그들은 몬산토와 코카콜라 등 거대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자신들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었다. 그밖에도 실물 경제의 회복과 공유지의 회복, 경제의 지역화가 지속가능성을 위한 조건으로 요구된다(Shiva and Shiva, 2022, 203-236). 이런 실제적 사례들은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독교교육이 사회의 불의와 구조악에 대해 일상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저항할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고통 받는 피해자와 피조물들의 입장에서 진실을 밝히고 알리는 결단력 있는 행동을 통해 영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일례로, 최근 SPC 그룹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는 대부분의 산재와 마찬가지로 상시적인 일손 부족으로 야근 및 장시간의 노동, 휴식 없는 구조에 의해 발생되었다(Cha, 2022). 이후 최근 소비자들은 SPC 계열사 제품들에 대한 불매운동을 진행하고 있다(고재민, 2022). 이처럼 잘못된 구조와 행태를 강제하는 기업들에 대해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은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특히 고도의 인터넷 기술과 SNS를 통해 불매 대상이 된 기업의 이미지는 급격히 하락하여 이것이 생산과 매출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화폐투표’, ‘소비자 주권’ 운동으로 일컬어지기도 한다(홍은실·서리나·신효연, 2022, 277-287). 구약학자인 브루그먼(Walter Brueggemann)에 따르면,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에 있는 신자들은 과잉생산과 과잉소비, 높은 성과를 부추기는 풍조를 시대의 압제로 인식하고 안식일의 원리에 따라 그것을 거부해야 한다. 또한 생계에 대한 모든 걱정과 근심, 외부의 압제와 배타주의, 그리고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멀티태스킹에 대해 저항해야 한다(2014, 40-41).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을 받은 존재로서 교회는 인습적 질서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사회를 변화시켜야 하는 사명을 지니며 따라서 예언자적 저항의 정신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Coleman, 1989, 61).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 해방신학자 성경모는 시장 자본주의는 인신제사를 요구한다고 지적했다(Sung, 2007, 94-99). 이에 지속가능성을 위한 요청은 다음과 같이 한국교회에 전달되고 있다.

“이 문제는 사회 양심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종교의 지도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이런 호소를 한다면 훨씬 더 울림이 크지 않을까. 그리고 구심의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나. 왜냐하면 어려운 조건이잖아요. 한국타이어 문제가. 이 문제 중심이 필요해요. 이 문제 중심이 종교적 양심이었던 가장 좋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중략) 큰 시국사건이 있을 때 종교계 계신 분들이 큰 역할을 했죠.” (박응용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 위원장 2019년 인터뷰 내용 중)

수많은 기업들이 환경파괴와 노동착취를 일삼으면서도 정계와 법조계, 언론계, 의료계 인사들을 동원해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해 가해 사실을 은폐하는 문제에 대해서 미국 클레어몬트

신학대학교의 캅(John Cobb) 교수는 기독교인들과 기독교 단체들이 거대 권력의 압력이나 이해관계로부터 벗어나 독립적 기구를 마련하여 과학 연구를 조직하고 그 성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직한 정보를 전파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주장했다(Cobb, 2018, 67-68). 조직신학자 전철(2018)도 생태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있어 기독교와 과학의 공조를 기대하면서 과학 기술의 사유화와 그것의 배타적 독점을 극복하기 위해 기독교가 지닌 종교적 지혜와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기독교교육 역시 학습자들로 하여금 불의한 현실에 대해 그것을 간과하거나 묵인하는 대신 피해자들의 편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드러내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사회, 즉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과제들이 있다. 일례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과 제도의 마련은 레위기 25장의 희년을 현대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유은주, 2020). 그밖에도 기존의 불평등한 사회체제를 고착화하는 능력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기독교교육적 실천 과제들도 수행될 필요가 있다(유은주, 2022b). 중요한 점은 이런 각각의 사안들을 회피하거나 간과해버리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직하게 직면하게 될 때 정의의 영성이 훈련될 수 있을 것이다(유은주, 2021; 2022a, 115; Groome, 1980, 214-223).

## V. 나가는 말

생태경제학자 델리(Herman E. Daly)의 불가능성 원리(Impossibility Theorems)에 따르면, 경제는 “물리적인 차원에서 유한하고 물질적으로 닫힌 지구의 에코 시스템의 한 하부구조”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1996, 192-193).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만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신 인간의 이성에 의존하여 무제한적인 자유를 영원해 왔으며 신자유주의는 그런 인간의 욕망에 부응해 ‘선택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를 지배해왔다. 그 결과,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말 못하는 피조물들과 목소리를 박탈당한 존재들이 제대로 항변할 기회도 없이 스러져가고 있다. 출애굽 당시 히브리 노예들의 통곡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과로에 시달리다가 죽은 딸을 애도하는 어머니와 산업재해로 인한 불치병에 시달리는 타이어 노동자들, 녹아내리는 빙하를 떠돌아다니는 북극곰의 신음을 듣고 계신다. 이런 상황이 전혀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라고 명명되는 그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발전이며 나의 편안함과 편리함, 내가 쓰고 있는 가성비 좋은 상품들의 대가가 다른 누군가의 피 값이라면, 또는 그로 인해 수많은 가정들이 실랑민이 되어야 한다면 그것을 꼭 사용해야만 할지, 그것을 사용해서 내가 느끼는 만족감이 과연 얼마나 오래 가는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때다.

지구환경의 위기를 우리의 잘못된 모든 생활습관과 양식들을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시그널로 이해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켜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 제안한 자족과 청빈, 나눔과 정의의 영성 훈련은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독교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즉,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독교 교육은 무엇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는 소비와 축재를 통해 만족을 얻으려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해 감사하고 만족하게 하는 자족의 영성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돌보신다는 믿음 가운데 신자유주의의 거짓된 망상으로부터 초월하게 하는 청빈의 영성, 사회 약자들을 위해 자신이 소유한 것들을 기꺼이 나누게 하는 나눔의 영성, 마지막으로 돈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외부 권력에 좌우됨 없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따르게 하는 정의의 영성을 도전, 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루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고재민 (2022.10.26). SPC 불매운동 장기화 조짐. **MBC 뉴스**, 2022.10.27.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1400/article/6420819\\_35722.html](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1400/article/6420819_35722.html)에서 인출.
- [Ko, J. M. (2022.10.26). Signs of prolonged boycott of SPC. *MBC NEWS*. Retrieved October 27, 2022, from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1400/article/6420819\\_35722.html](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1400/article/6420819_35722.html)
- 김균진 (2021). 기독교 영성의 유형들과 통합적 이해. **신학과 교회**, 15, 364-407.
- [Kim, K. J. (2021). An integrated understanding of the types of christian spirituality. *Theology and Church*, 15, 364-407.]
- 김난예 (2017). 아미쉬의 신앙과 삶이 현대에 주는 메시지. **기독교교육논총**, 50, 11-44.
- [Kim, N. Y. (2017). A study on Amish's faith and life for modern times.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50, 11-44.]
- 김태봉 (1995.4.24). 비(非)정부기구 목소리만 높았다. **국정신문**, 2022.9.21.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742303>에서 인출.
- [Kim, T. B. (1995.4.24). Only the voices of NGOs were high. *National Newspaper*. Retrieved September 21, 2022, from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742303>
- 김희권 (2019). 회년과 하나님 나라. 김근주 외, **회년** (pp. 19-90). 서울: 홍성사.
- [Kim, H. K. (2019). Jubilee and the kingdom of God. In K. J. Kim et al., *Jubilee* (pp. 19-90). Seoul: Hongnungsa.]
- 류삼준 (2021). 생명 위기 시대, 기독교의 안식, 그리고 기독교교육. **기독교교육논총**, 67, 339-375.
- [Ryu, S. J. (2021). Christian Sabbath and christian education in the era of 'life crisis'.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67, 339-375.]
- 박명희 외 (2006). **생각하는 소비문화**. 파주: 교문사.
- [Park, M. H. et al. (2006). *Thinking consumer culture*. Paju: Kyomunsa.]
- 박상진 (2022.11). 이호영 박사의 “ESG와 기독교”에 대한 논찬. 2022년 한국기독교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pp. 18-20).
- [Park, S. J. (2022.11). A comment on Dr. Lee Ho-Young's 'ESG and Christianity'. The Korean Society of Christian Religious Education. Seoul.]
- 박세진 (2017.5.3). 제대로 된 옷을 만드는 데는 돈이 든다. **한국일보**, 2019.4.26. <https://v.daum.net/v/20170503044224498>에서 인출.
- [Park, S. J. (2017.5.3). It costs money to make proper clothes. *Hankookilbo*. Retrieved April 26, 2019, from <https://v.daum.net/v/20170503044224498>
- 신익상 (2021). 포스트휴먼 시대 생태학과 기독교교양교육. 김학철 외 공저, **21세기 이후의 기독교교양** (pp. 124-156).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 [Shin I. S. (2021). Ecology and christian liberal arts education in the post-human era. In H. C. Kim et al., *Christian Liberal Arts after the 21st Century* (pp. 124-156).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 유은주 (2020). 주빌리 정의를 위한 주빌리 교육의 내용. **기독교교육논총**, 62, 285-311.
- [Yoo, E. J. (2020). The contents of jubilee education for jubilee justice.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62, 285-311.]
- 유은주 (2021).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의 실천을 위한 탈인습적 기독교 성인 교육. **신학사상**, 195, 381-414.
- [Yoo, E. J. (2021). Postconventional christian adult education for the practice of justice in the post COVID-19 era. *Theological Thought*, 195, 381-414.]

- 유은주 (2022a). 기독교적 전환학습의 구성에 대한 고찰. **신학논단**, 108, 95-126.
- [Yoo, E. J. (2022a). A reflection on developing christian transformative learning. *Theological Forum*, 108, 95-126.]
- 유은주 (2022b). 능력주의와 미래의 기독교교육 연구. 김난예 편, **미래세대와 기독교교육** (pp. 269-296). 서울: 한국기독교교육학회.
- [Yoo, E. J. (2022b). Meritocracy and christian educational research for next generation. In N. Y. Kim (Ed.), *Next generation and christian education* (pp. 269-296). Seoul: Korean Society of Christian Religious Education.]
- 유진영 (2004). 바울로의 모금 운동에 대한 연구. **신학과 철학**, 6, 1-22.
- [Yoo, J. Y. (2004). A study on Paul's fund-raising. *Theology and Philosophy*, 6, 1-22.]
- 윤지로 (2022). **탄소로운 식탁**. 서울: 세종.
- [Yoon, J. R. (2022). *A carbon-filled table*. Seoul: Sejongbooks.]
- 이동훈 (2017.11.3). '죽음의 아우슈비츠?!' 한국타이어 여직원 "검은 생리가..." **시스뉴스**. 2019.5.10. <http://www.sisa-news.com/news/article.html?no=110232>에서 인출.
- [Lee, D. H. (2017.11.3). Auschwitz of death: Black-blooded from a female employee of Hankook Tire factory. *Sisa News*. Retrieved May 10, 2019, from <http://www.sisa-news.com/news/article.html?no=110232>]
- 이법진 (2018). '죽음의 공장' 20년 무슨 일이 있었나: 노동자 '집단 사망' 알리는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 **복음과 상황**, 327, 6-21.
- [Lee, B. J. (2018). What happened to the death factory for 20 years: Hankook Tire Industrial Accident Council announces the death of a group of workers. *Gospel & Context*, 327, 6-21.]
- 이인미 (2022). 기후변화에 대한 '집합적 책임'과 기독교교육. **기독교교육논총**, 71, 155-179.
- [Lee, I. M. (2022). Christian education and collective responsibility for climate change.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71, 155-179.]
- 이호영 (2022.11). ESG와 기독교. 2022년 한국기독교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pp. 11-17).
- [Lee, H. Y. (2022.11). ESG and Christianity. The Korean Society of Christian Religious Education. Seoul.]
- 임희숙 (2010). 먹거리 문화에 대한 기독교교육적 성찰. **기독교교육논총**, 23, 273-296.
- [Lim, H. S. Christian educational reflection about the food culture.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23, 273-296.]
- 장운재 (2016). 경제양극화 극복을 위한 회개의 선교. **대학과 선교**, 31, 73-106.
- [Chang, Y. J. (2016). Economic polarization and the role of churches. *University and Mission*, 31, 73-106.]
- 장운재 (2020). 기후붕괴, 문명의 전환 그리고 신학의 재구성. 황홍렬 편, **코로나19와 한국교회의 회심** (pp. 43-70). 서울: 동연.
- [Chang, Y. J. (2020). Climate collapse, transformation of civilization and reconstruction of theology. In H. R. Hwang, *Covid-19 and the conversion of the Korean church* (pp. 43-70). Seoul: Dongyeon.]
- 장현은 (2022. 10. 25). SPC 산재, 당한 시간대 같았다... 꼬박 밤샘 근무한 끝이었다. **한겨레**. 2022.10.26.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64080.html>에서 인출.
- [Jang, H. E. (2022.10.25). SPC manufacturing accident, the same time: It was the end of the whole night's work. *Hanhvoreh*. Retrieved October 26, 2022, from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64080.html>]
- 전 철 (2018). 종교와 과학의 거울로서의 생태문명. **신학연구**, 73, 7-28.
- [Chun C. (2018). Ecological civilization as a mirror of dialogue between religion and science. *Theological Studies*, 73, 7-28.]
- 조미영 (2021). 기후변화의 위기와 기독교 생태교육의 방향 모색. **기독교교육논총**, 67, 415-447.
- [Cho, M. Y. (2021). The crisis of climate change and the direction of christian ecological education.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67, 415-447.]

- 조은하 (2007). 생태적 삶을 위한 기독교교육: 매튜 파크의 창조영성을 중심으로. **기독교교육논총**, 15, 171-205.
- [Cho, E. H. (2007). Christian education for ecological life: Focused on Matthew Fox's creation spirituality.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15, 171-205.]
- 지속가능발전포털. 지속가능성. <http://ncsd.go.kr/unsdgs?content=2>
- 최미량 (2016.7.19). 방글라데시 '라나플라자' 의류공장 붕괴사고, 3년만에 책임자들 기소. **경향신문**. 2019.2.12.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1607191748001>에서 인출.
- [Choi, M. R. (2016.7.19). Managers were charged after three years of collapse of Bangladesh's Lana Plaza clothing factory. *Khan*. Retrieved February 12, 2019, from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1607191748001>]
- 최원기 (2012). 유엔 기후변화협상의 정치경제. 전의찬 외 공저, **기후변화: 25인의 전문가가 답하다** (pp. 116-143). 서울: 지오북.
- [Choi, W. K. (2012). Political economy in UN climate change negotiations. In E. C. Jeon et al., *25 Experts' Solutions for Climate Change* (pp. 116-143). Seoul: Geobook.]
- 한국교회사학회 편 (2011). **사막교부들의 금언집**. 남성현 역. 서울: 두란노 아카데미.
- [The Church History Society in Korea (Ed.) (2011). *The sayings of the desert fathers systematic collection*. Translator: Nam, S. H. Seoul: Duranno. (Original article published in 2005)]
- 홍은실 · 서리나 · 신희연 (2022). **지속가능사회와 소비생활**. 광주: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 [Hong E. S., Seo, R. N., & Shin, H. Y. (2022). *Sustainable society and consumer life*. Gwangju: Chonnam National University Press.]
- 황용구 외 (2018). 은혜 의혹 10년,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의 죽음. **KBS 추적60분**. 2019.5.10. <https://www.youtube.com/watch?v=Z9OnlgjSX2M>에서 인출.
- [Hwang, E. K. et al. (2018.11.19). A decade of cover-up allegations: The death of Hankook Tire employees. *KBS Tracking 60 minutes*. Retrieved May 10, 2019, from <https://www.youtube.com/watch?v=Z9OnlgjSX2M>]
- Blomberg, C. L. (2013). *Christians in an age of wealth: A biblical theology of stewardship*. Grand Rapids: Zondervan.
- Bringezu, S. (2015). Possible target corridor for sustainable use of global material resources. *Resources*, 4(1), 25-54.
- Broder, J. M. (2012. 12. 8). Climate talks yield commitment to ambitious, but unclear actions. *New York Times*. Retrieved September 4, 2022, from <https://www.nytimes.com/2012/12/09/science/earth/talks-on-climate-produce-promises-and-complaints.html>
- Brown, L. R. (1996). The acceleration of history. In L. R. Brown (Ed.), *State of the world* (pp. 3-20). New York: Norton.
- Brueggemann, W. (2014). *Sabbath as resistance*.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 Cha, J. H. (2022). SPC 758 injured in 5 years: higher than the manufacturing average accident rate. MBC NEWS. Retrieved October 21, from <https://www.newsdirectory3.com/spc-758-injured-in-5-years-higher-than-average-manufacturing-accident-rate/>
- Cobb, J. (2018). 생태문명의 전환을 위한 종교와 과학의 대화. **신학연구**, 73, 55-68.
- [Cobb, J. (2018). The dialogue between religion and science for the transformation of ecological civilization. *Theological Studies*, 73, 55-68.]
- Coleman, J. A. (1989). The two pedagogies: Discipleship and citizenship. In M. C. Boys (Ed.), *Education for citizenship and discipleship* (pp. 35-75). New York: Pilgrim.
- Daly, H. E. (1996). Sustainable growth? No thank you. In J. Mander and E. Goldsmith (Eds.), *The case against the global economy and for a turn toward the local* (pp. 192-196). San Francisco: Sierra Club Books.
- Dowie, M. (1996). *Losing ground*. Cambridge: MIT.

- Flavin, C. (1996). Facing up to the risks of climate change. In L. R. Brown (Ed.), *State of the world* (pp. 21-39). New York: Norton.
- Ford, L. (2015. 7. 19).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ll you need to know. *The Guardian*. Retrieved September 6, 2022, from <https://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15/jan/19/sustainable-development-goals-united-nations>
- Fox, M. (1983). *Original blessing*. Santa Fe: Bear.
- Fox, M. (1991). *Creation spirituality*. San Francisco: Harper.
- Groody, D. G. (2009). *Globalization, spirituality, and justice*. New York: Orbis.
- Groome, T. H. (1980). *Christian religious educ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 Gupta, J. (2010). A history of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policy. *Wiley Interdisciplinary Reviews*, 1(5), 636-653.
- Harvey, D. (2021). **자본주의는 당연하지 않다**. 강윤혜 역. 서울: 선순환. (원저 2020년 출판)
- [Harvey, D. (2021). *The anti-capitalist chronicles*. Translator: Kang, Y. H. Seoul: Seon Sun Hwan books. (Original article published in 2020)]
- Hickel, J. (2016. 3. 22). The SDGs fail to offer the new economy we so desperately need. *Eldis*. Retrieved October 10, 2022, from <https://www.eldis.org/blogpost/sdgs-fail-offer-new-economy-we-so-desperately-need#.VdQhm7chzWY>
- Hickel, J. (2020). The sustainable development index: Measuring the ecological efficiency of human development in the anthropocene. *Ecological Economics*, 167: 1-10. Retrieved September 23, 2022, from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abs/pii/S0921800919303386>
- Hickel, J. (2021). **적을수록 풍요롭다**. 김현우 · 민정희 공역. 파주: 창비. (원저 2020년 출판)
- [Hickel, J. (2021). *Less is more*. Translator: Kim, H. W. and Min, J. H. Paju: Changbi. (Original article published in 2020)]
- Jackson, T. (2012. 5. 26). Let's be less productive. *New York Times*. Retrieved October 3, 2022, from <https://www.nytimes.com/2012/05/27/opinion/sunday/lets-be-less-productive.html>
- Jackson, T. & Victor, P. (2011). Productivity and work in the 'green economy'. *Environmental Innovation and Societal Transitions*, 1(1), 101-108. Retrieved August 10, 2022, from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abs/pii/S2210422411000165>
- Kerr, R. A. (2000.11.3). Can the Kyoto climate treaty be saved from itself? *Science*. Retrieved September 21, 2022, from [https://www.science.org/doi/abs/10.1126/science.290.5493.920?adobe\\_mc=MC MID%3D58000437841860946489208149054056839995%7CMCORGID%3D242B6472541199F70A4C98A6%2540AdobeOrg%7CTS%3D1655510400](https://www.science.org/doi/abs/10.1126/science.290.5493.920?adobe_mc=MC MID%3D58000437841860946489208149054056839995%7CMCORGID%3D242B6472541199F70A4C98A6%2540AdobeOrg%7CTS%3D1655510400)
- Klein, N. (2016).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자본주의 대 기후**. 이순희 역. 파주: 열린책들. (원저 2014년 출판)
- [Klein, N. (2016). *This changes everything*. Translator: Lee, S. H. Paju: The Open Books. (Original article published in 2014)]
- Lee, J. S. (2018.8.29). Hankook Tire factory has killed 168 workers in a 20-year period. *IT Times*. Retrieved May 1, 2019, from <http://www.kore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85540>
- Lomborg, B. (2003). **회의적 환경주의자**. 홍욱희 · 김승욱 공역. 서울: 에코리브르. (원저 2001년 출판)
- [Lomborg, B. (2003). *The skeptical environmentalist*. Translator: Hong, W. H. and Kim, S. W. Seoul: Ecolivres. (Original article published in 2001)]
- McFague, S. (2006). **어머니, 연인, 친구: 생태학적 핵 시대와 하나님의 세 모델**. 정애성 역. 서울: 풀밭. (원저 1987년 출판)
- [McFague, S. (2006). *Models of God: Theology for an ecological, nuclear age*. Translator: Jeong, A. S. Seoul: Ttlbak.

(Original article published in 1987)]

- McFague, S. (2008). **기후변화와 신학의 재구성**. 김준우 역. 서울: 한국기독교연구소. (원저 2008년 출판)
- [McFague, S. (2008). *New climate for theology*. Translator: Kim, J. W. Seoul: Korean Institute of the Christian Studies. (Original article published in 2008)]
- McMichael, P. (2013). **거대한 역설: 왜 개발할수록 불명등해지는가(5판)**. 조효제 역. 서울: 교양인. (원저 2012년 출판)
- [McMichael, P. (2013). *Development and social change* (5th ed.). Translator: Cho, H. J. Seoul: Gyoyangin. (Original article published in 2012)]
- Mies, M. & Shiva, V. (2020). **에코 페미니즘(개정판)**. 손덕수 · 이난아 공역. 파주: 창비. (원저 2014년 출판)
- [Mies, M. & Shiva, V. (2020). *Ecofeminism* (Rev. ed.). Translator: Soh, D. S. and Lee, N. A. Paju: Changbi. (Original article published in 2014)]
- Morgan, A. (2015). *The true cost*. <https://www.netflix.com>.
- Payne, R. J. (2017). **글로벌 이슈: 정치·경제·문화(5판)**. 조한승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저 2017년 출판)
- [Payne, R. J. (2017). *Global issues: Books a la carte* (5th ed.). Translator: Cho, H. S. Seoul: Sigma Press. (Original article published in 2017)]
- Shellengerger, M. (2021).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 노정태 역. 서울: 부키. (원저 2020년 출판)
- [Shellengerger, M. (2021). *Apocalypse never*. Translator: Noh, J. T. Seoul: Bookie. (Original article published in 2020)]
- Shin, I. S. (2019). Ecological theology in the era of climate crisis. *Madang*, 32, 115-138.
- Snarr, M. T. & Snarr, D. N. et al. (2018). **세계화와 글로벌이슈(6판)**. 김계동 외 공역. 서울: 명인문화사. (원저 2016년 출판)
- [Snarr, M. T. & Snarr, D. N. et al. (2018). *Introducing global issues* (6th ed.). Translator: Kim, K. D. et al. Seoul: Myoung In Publishers. (Original article published in 2016)]
- Soper, Kate (2021). **성장 이후의 삶**. 안종희 역. 서울: 한문화. (원저 2020년 출판)
- [Soper, Kate (2021). *Post-growth living*. Translator: Ahn, J. H. Seoul: Hanmunhwa. (Original article published in 2020)]
- Sung, J. M. (2007). *Desire market and religion*. London: SCM.
- WCED. (1987). *Our common future*. Retrieved September 6, 2022, from <http://www.un-documents.net/ocf-02.htm#I>